

외국 사례

하에도마리어항 하마다어항 큰누이어항



하마다어항은 수려한 해안공원과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는 문화 예술공간이 풍부하여 삶에 지친 도시인들이 자연과 예술 속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충분한 몫을 해 내고 있다.

본 지 / 부설어항어촌개발연구소

나가사키(長崎) 하에도마리(南風泊)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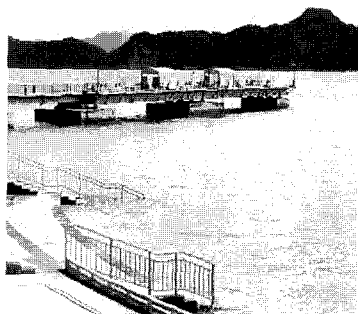


「하에도마리(南風泊)어항」은 나가사키현(長崎縣) 서남부의 다카시마정(高島町)에 속해 있는 제1종 어항이다. 하에도마

리어항의 정식명칭은 시모노세키(下關)어항 하에도마리분항(南風泊分港)이라고 하며, 히코도(彦島)의 니시아마지구

(西山地區)에 위치해 있다. 「하에도마리」라고 하는 지명의 유래는 「에도(江戸) 시대의 초기부터 시작된 기타마에선(北前船)이 간몬해협(關門海峽)을 지나갈 때, 격렬한 「남풍」을 피하기 위해서 정박했던 땅」라고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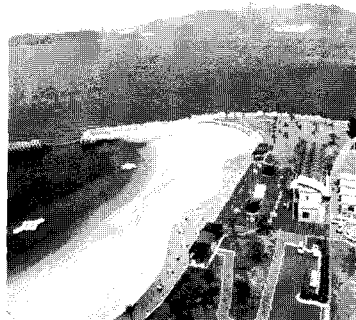
이 하에도마리어항에 하에도마리시장이 있는데, 연간의 어획고는 3,100톤에 이르며 (1997년) 일본전국의 복어에 약80%가 이 하에도마리시장에서 취급된다. 또한 1997년(평성 9년) 7월에 오픈해 2001년(평성 13년) 6월까지 약 5만명이 이용한 토비시마



토비시마(飛島) 바닷가낚시공원



62센치 광어를 잡고 기뻐하는 낚시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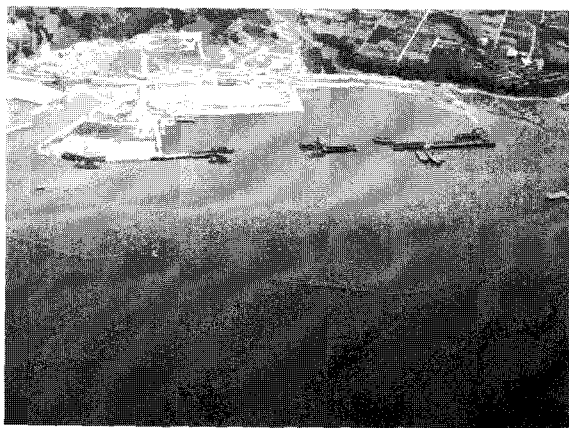
타카시마(高島) 인공 해수욕장

바닷가낚시공원은 온난한 기후와 참돔, 감성돔 등의 풍부한 어종으로 오픈이래 수많은 월척들이 올라와 텔레비전이나 신문, 낚시 잡지 등에 소개되면서 낚시꾼을 흥분·만족시키는 나가사키현내의 최고의 포인트로 알려져 있다.

타카시마 인공 해수욕장은 주위를 우드데크로 만들어 언제나 은은한 나무향기를 맡을 수 있으며 또, 바다밑을 자연 그대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한가로이 헤엄쳐 노는 물고기들을 관찰할 수도 있다.

얕은 해수욕장이므로 작은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야영객들이 많은데 캠프장시설도 잘되어 있고, 관리시설도 온수샤워, 로커실, 화장실, 장애인사용 화장실 등 어느 평범한 바닷가에서 맛 볼 수 없는 관광 리조트시설을 만들어 일상의 지친 도시인들을 손짓하고 있다.

시마네(島根) 하마다(浜田)어항



하마다(浜田)어항은 정어리, 가자미, 넙치 같은 풍부한 어족자원과 천해의 지형을 타고 난 어항이다. 하마다어항은 소화(昭和)초기부터 축항 공사가 시작되어 특히, 소화44년(1969년)에는 특정 제3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정비가 촉진되면서 시마네현(島根縣)에서 최대의 어획량을 자랑하는 서일본 유수한 어업기지로 성장했다.

그러나 어획량의 감소와 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령화, 후계자 부족 등에 의해 「잡는 어업으로부터 기르는 어업」에의 변환이나, 젊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 일할 수 있는

어업 환경 만들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연안 수역의 종합적인 정비 개발과 육상 기능시설의 정비 및 이러한 시설을 이어주는 도로가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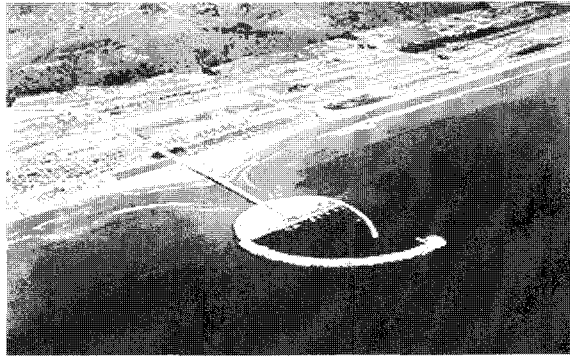
하마다 마린대교(浜田マリン大橋)는 바다·어업과의 만남과 수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한 만남의 임항도로의 일부로서 「수산도시 하마다의 새로운 심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마다시(江津市)와 고우츠시(浜田市)에 걸쳐 있는 전장 5.5km의 이와미 해변(石見海浜)공원은 전망대, 테니스 코트, 케빈촌, 오토캠프장, 캠프촌, 어린이 광장, 등이 있어 여름의 해수욕장을 시작해 봄·가을의 레크레이션, 겨울의 거친 바다 등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다.

어항이 한눈에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지어진 백색의 5층 건물이 「세계어린이 미술관」이다. 건물의 모양도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일본해에 떠 있는 배의 형상을 하고 있는 조금은 유니크한 미술관이다. 이곳의 기본 방침은 어린이 등에게 작품을 보는 즐거움과 만드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등의 휴일에 페인트 놀이, 철사공예같은 테마를 마련해 참가어린이들을 모집하고 있다. 소장품도 피카소가 14세에 그린 소묘화, 사갈의 석판화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하마다어항은 수려한 해안공원과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는 문화·예술공간이 풍부하여 삶에 지친 도시인들이 자연과 예술 속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충분한 몫을 해내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쿤누이(國縫)어항



일본 수산청의 주도 하에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1994년에 완성한 일본 최초의 와인글라스형 「쿤누이(國縫)어항」은 실용적이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어항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쿤누이 지구는 간만의 차이가 격심한 지역으로 조수간만 차가 클 때에는 해안이 150m나 나타나 항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선을 해안으로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노력과 위험이 뒤따랐다. 또 훈카만(噴火灣)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여 약한 바람으로도 파랑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어항에 비해 어로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 우치우라만(内浦灣)과 같이 먼 곳까지 얕은 수심의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진 어항에서는 모래퇴적으로 인한 선박의 항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어항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또 해안에 만들어진 구조물은 물결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변의 해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학적인 계산에 기초를 두

어 만들어진 것이 이 인공섬식 어항이다. 방파제가 해변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래사장이 소실되는 일도 없고, 또 매끈한 곡선으로 만들어진 모양은 해류에 대한 저항도 최소화 하고 있다. 또 정온하게 된 배후의 바다는 천해 생물을 키우는 장소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이 어항의 주변은 해변 공원으로서 우치우라만을 360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와 야영장을 갖추고 있으며, 연중 가자미가 잡히는 북해도 남부의 유명한 낚시터로서 블루투어리즘(Blue Tourism)을 즐기려는 가족단위의 야영객들과 짜릿한 손맛을 느끼려는 낚시꾼들로 언제나 활기가 넘치고 있다. 이곳 「쿤누이어항」은 시민들이나 관광객에게 열린 어항공간으로서 도시입지형어항과 관광어항의 기능을 모두 수행해 나가는 일본의 성공한 어항 중에 하나이다. ㉠